

대순진리의 지상신선실현-인간개조에 관한 연구

李京源*

目次

I. 서언	
II. 지상신선과 인간개조에 대한 이론적 기초	4) 천도교의 인간개조론
1. 신선사상의 유래와 지상신선	III. 대순진리의 지상신선실현 -인간개조론
1) 신선사상의 유래	1. 지상신선실현의 역사적 근거 - 천지공사
2) 지상신선의 의미	2. 인간개조 방법론으로서의 수도
2. 이상적 인간상과 인간개조론	3. 지상신선실현 · 인간개조의 교학적 함의
1) 유교의 성인군자론	IV. 결론
2) 불교의 불타론	
3) 도교의 신선론	

I. 서언

대순진리는 강세하신 구천상제께서 9년간 행하신 천지공사의 유지(遺志)를 계승하여 50년 공부종필로써 전하신 조정산 도주의 유법(遺法)을 숭신(崇信)하는 말이다. 오늘날의 현대 종단에서는 그 유법이 하나의 체계적인 교리 개요로서 전해오고 있으니 종지와 신조 목적이 그것이다. 여기서 목적은 신앙적 실천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 경지를 일컫는 말인데 개인의 정신적 경지도 포함하고 나아가 사회적 세계적인 가치실현의 경지를 묘사하고 있다. 즉 무자기 · 정신개벽은 실천 수도하는 가운데 도달할 수 있는 정신적 경지이며, 지상신선실현 · 인간개조는 그 정신적 경지를 포함한 이상적 인간

* 대진대학교 대순종학과 교수

상을 지칭하며, 지상천국건설·세계개벽은 그렇게 완성된 인간이 모여 사는 이상사회 또는 이상세계를 총칭하는 말이다. 한 개인으로부터 나아가 사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전체에 이르는 가치실현의 단계는 비록 시간적 선후를 구분할 수는 없지만 실천수도의 궁극적 목적이 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본 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대순진리의 목적으로 제시된 항목 가운데 지상신선실현·인간개조에 관해서이다. 무자기·정신개벽은 앞선 논문에서 이미 다룬 바 있거니와 인간 본연의 심성계발에서부터 그 청정한 정신적 경지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되었다. 지상신선실현·인간개조에서는 그러한 정신적 경지를 포함하여 인간자신의 총체적 완성을 어떤 모습으로 실현할 것인가를 다루어야 하리라 본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먼저 지상신선과 인간개조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설정하여 그 개요를 고찰하며, 이어서 대순진리에서 추구하는 목적으로서 지상신선실현·인간개조의 의미를 살피고 나아가 그 교학적 함의에 대해서 논해보기로 하겠다.

Ⅱ. 지상신선과 인간개조에 대한 이론적 기초

1. 신선사상의 유래와 지상신선

1) 신선사상의 유래

신선(神仙)은 선인(仙人) 선(仙) 신인(神人) 진인(真人)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일컬어지는데, 일반적으로는 보통사람 이상의 훨씬 긴 수명을 누리고 마음대로 하늘을 날아 다닐 수 있는 초인간적인 존재를 지칭한다. 그 글자의 구성에서 볼 수 있듯이 인(人)+산(山)의 의미는 산에 들어가서 불로불사(不老不死)의 술(術)을 얻은 사람을 통칭하고 있다.¹⁾ 이러한 신선에 대한 관념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지닌 욕구의 한 단면을 나타내주고 있다. 즉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스스로 자기의 존재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 1) 「大漢和辭典」一, p.601 참조

인간은 죽을 수 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자각하고 어떤 영원·무한한 것에 대하여 외경하는 태도를 지닌다는 것이다.²⁾ 모든 종교문화는 바로 인간의 이러한 특성에서부터 유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신선에 대한 동경(憧憬)은 동양의 민족에게서 자신의 유한성을 극복하고자 탐구했던 노력을 여실히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하겠다. 서양의 계시종교적 특성에서는 인간의 유한성이 어떤 절대자에 대한 믿음과 헌신의 태도로 인해 죄사함을 받고 사후세계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유일한 목적으로 설명되지만, 신선설을 중심으로 하는 동양종교에서는 각 개인의 양생법(養生法)으로 육체적인 수명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다는데 관심을 둔다. 이런 측면에 의해 동양종교가 내세주의(來世主義)적이기보다는 현세주의적 성격이 강하다는 주장도 나오게 된다.³⁾ 오늘날 중국의 도교사원에서나 한국의 사찰 등지에서 모셔지고 있는 신선(神仙)상은 동양문화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상적 인간상이 잘 묘사된 것이라 하겠다.

신선설을 역사서에 근거하여 찾아본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사기(史記)』의 「봉선서(封禪書)」에 나오는 내용일 것이다. 여기에는 중국 전국시대의 제나라 위(威)왕과 선(宣)왕 그리고 연나라 소(昭)왕이 각각 사람을 보내어 바다 가운데 있는 봉래(蓬萊) 방장(方丈) 영주(瀛州)의 삼신산(三神山)을 찾게 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 삼신산은 발해(渤海)가운데에 있으면서 많은 신선들이 살고 있고 또한 불사약(不死藥)이 있다. 그곳에 세워진 궁전은 모두 금은으로 만들어지고, 살고 있는 새나 동물들은 모두 흰색이라고 한다. 멀리서 보면 구름과 같이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삼신산은 물밑에 있는 것처럼 거꾸로 보이며 계속 접근하면 바람이 불어 멀리 보내버리게 되어 마침내 이를 수 없게 만든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당시에 관심을 가지지 않은 제후가 없었다고 하는데, 특히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秦始皇)은 그 집착이 대단했던 것으로 묘사된다. 그는 천하를 통일한 다음해(B.C.219) 봉선(封禪)을 행하고 해안지방을 여행하면서 많은 방사(方士)들로부터 신선이야기를

2) 이은봉 『종교세계의 초대』 벽호, 1992, pp 15~21 참조

3) 신선설을 중심으로 하는 동양종교로서는 도교(道敎)가 대표적이라고 하겠지만, 유교 또한 동양종교의 하나로써 강한 현세주의적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유학사상』 성균관대 출판부, 1999, p.10 참조)

들었다. 그리하여 서불(徐市)이하의 방사들에게 재계(齋戒)하게 한 뒤 동남(童男)·동녀(童女) 수천명을 거느리고 삼신산에 불사약을 가지러 보냈다. 비록 진시황은 불사약을 얻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었지만 당시의 신선설이 정치인에게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⁴⁾ 이와 같이 고대의 왕들이 특히 신선을 동경하였다는 기록은 자신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 쾌락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데서 요구되었다고 보고 그것이 점차로 일반인들 사이에 퍼져나갔던 것으로 보기도 한다.⁵⁾

신선이 지니는 특성은 여러 문헌에 다양하게 기술되어 있다. 신선을 뜻하는 글자는 원래 선(僊) 또는 선인(仙人)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설문(說文)』에는 “오래 살고 하늘을 날아가는 것”이라고 하였으며⁶⁾ 『석명(釋名)』에는 “늙어도 죽지 않는 것”을 선(仙)이라 하고 천(遷)과 같은 뜻으로 보아 사람이 산으로 옮겨간다고 하는데서 선(仙)자가 만들어졌다고 한다.⁷⁾ 『초사(楚辭)』에는 진인(真人)의 아름다운 덕은 ‘속세를 떠나 신선이 되는 것’에 있음을 말하였으며⁸⁾ 『산해경』에는 명산에는 항상 신인(神人)이 나온다고 기록하고 있다.⁹⁾ 신선이 지니는 능력에 대해서는 주로 신인(神人) 진인(真人) 선인(仙人)에 대한 설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장자(莊子)』나 『열자(列子)』에 묘사되어 있는 신인(神人)은 “그 피부가 눈이나 얼음 같고 그 몸의 유연함이 처녀와 같으며 오곡을 일체 먹지 않고 바람을 흡입하고 이슬을 마시며 구름을 타고 용을 몰며 세상 밖에서도 노닌다”고 하였으며¹⁰⁾, 진인(真人)은 “잠을 잘 때에도 꿈을 꾸지 않고…발뿔꿈치로 숨을 쉰다”고 하였다.¹¹⁾ 『포박자(抱樸子)』에는 단약(丹藥)을 먹고 신선이 된 여덟 사람을 소

4) 『史記』卷 28, 封禪書 「自威宣燕昭使人入海, 求蓬萊方丈瀛州 此三神山者 其傳在渤海中…」

5) 구보 노리따다, 최준식 역 『道敎史』, 분도출판사, 1990, p87

6) 『說文解字』 「僊 長生僊去」注 「僊僊, 舞袖飛揚之意」

7) 『釋名』釋長幼, 「老而不死曰仙, 仙遷也, 遷入山也. 故其制字人旁作山也」

8) 『楚辭』卷五, 遠遊(屈原) 「貴眞人之休德兮, 美往世之登仙」

9) 『山海經』 「又東一百五十里, 曰熊山. 有空焉, 熊之空, 恆出神人 … 有神人二人, 連臂, 爲帝司夜于此野. 在羽民東. 其爲小人頰赤肩. … 有夏州之國. 有蓋余之國. 有神人, 八首人面, 虎身十尾, 名曰天吳」

10) 『莊子』逍遙遊, 「邈姑射之山, 有神人居焉, 肌膚若冰雪, 綽約若處子., 不食五穀, 吸風飲露., 乘雲氣, 御飛龍, 而遊乎四海之外」 이와 비슷한 내용이 <列子 黃帝第二>에도 묘사되어 있다.

11) 『莊子』大宗師 「古之眞人, 其寢不夢, 其覺無憂, 其食不甘, 其息深深. 眞人之息以踵, 衆

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선인(仙人)은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으며 더위나 추위도 전혀 느끼지 않고 하루에 오백리를 가며 무게 천근을 들어올리고 몸이 가벼워 날아다니며 마음대로 모습을 변하게 하고 은폐시킬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¹²⁾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신선은 그가 지닌 다양한 능력으로 보통 인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모든 육체적인 제약을 뛰어넘고 불로불사한다는 데서 매력을 지니며, 이것은 결국 인간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바람으로 그러한 신선을 상정하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신선사상은 후대에 이르러 종교집단으로서의 도교(道敎)가 형성되고 성장함에 따라 일정한 신앙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보다 구체적인 수행 방법이 계발되게 되었다.

2) 지상신선의 의미

그렇다면 지상신선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말 그대로 ‘지상에서의 신선’이라는 뜻으로 이 때 지상(地上)은 천상(天上)의 반대의미로서 이해하는 것이 유효하다. 즉 천상은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인간으로서는 감히 넘나볼 수 없는 초월적이며 불가시적인 세계를 지칭한다. 인간이 사후(死後)에나 갈 수 있는 영(靈)적인 곳이면서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상세계인 것이다. 그러나 지상(地上)은 그렇지 않다. 구체적이며 가시(可視)적인 공간으로서 인간이 살아가는 현실세계가 모두 지상이다. 따라서 지상신선이란 앞에서 설명한 신선이 현실에서 확인되지 않는 공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확인 가

人之息以喉。」

12) 「抱樸子」仙藥, 卷第十一 「昔仙人八公, 各服一物, 以得陸仙, 各數百年, 乃合神丹金液, 而升太清耳。人若合八物, 煉而服之, 不得其力, 是其藥力有轉相勝畏故也。韓終服菖蒲十三年, 身生毛, 日視書萬言, 皆誦之, 冬袒不寒。又菖蒲生須得石上, 一寸九節已上, 紫花者尤善也。趙他子服桂二十年, 足下生毛, 日行五百里, 力舉千斤。移門子服五味子十六年, 色如玉女, 入水不沾, 入火不灼也。楚文子服地黃八年, 夜視有光, 手上車弩也。林子明服術十一年, 耳長五寸, 身輕如飛, 能超逾淵谷二丈許。杜子微服天門冬, 御八十妾, 有子百三十人, 日行三百里。任子季服茯苓十八年, 仙人玉女往從之, 能隱能彰, 不復食谷, 灸癥皆滅, 面體玉光。陵陽子仲服遠志二十年, 有子三十七人, 開書所視不忘, 坐在立亡。」

능한 구체적 모습의 인간임을 지향하는 개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지상신선은 ‘지상선(地上仙)’ 또는 ‘지선(地仙)’등의 의미로 일컬어져 왔다고 본다. 지상선(地上仙)은 지상의 신선으로서 현실에서 팔자가 아주 좋은 사람을 가리킨다. 『고려사(高麗史)』의 기록에 따르면 최당(崔讜)이라는 사람은 신종 때의 인물로서 여러 번 벼슬에 올랐으나 퇴직을 청원하여 한가한 생활을 하였다. 자기 서재에 쌍명재(雙明齋)라는 현액을 붙이고 전임 퇴직자들과 기로회(耆老會)를 조직한 뒤 유유자적하는 생활을 하였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그들을 ‘지상신선’이라 불렀다 한다.¹³⁾ 『옥루몽(玉樓夢)』에도 보면 ‘병이 없고 근심이 없으며 한가로이 지내는 사람’을 지상선으로 묘사하고 있다.¹⁴⁾ 지선(地仙)에 대해서는 『포박자』에서 선인을 크게 세가지 등급으로 나누고 “중급의 신선은 명산(名山)에서 노닌다고 하니 이를 지선(地仙)이라 한다”고 하였으며¹⁵⁾, 당나라 백거이(白居易)의 시에 “관직을 버리고 근심이 없으니 곧 지선(地仙)이라”¹⁶⁾고 한데서 알 수 있듯이 평소에 근심 걱정이 없으며 한가로이 지내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지상신선은 실제로 불로불사하며 하늘을 날아다니는 신비한 능력의 소유자를 지칭하기보다는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삶의 태도에 대한 모습에 치중하고 있다. 즉 세상의 속된 욕심에 치우치지 않고 남과 다투지 않으며 삶과 죽음에 초연할 줄 알며 자연과 더불어 한가로이 자신의 몸을 맡길 줄 알 때 이러한 사람을 지상신선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장자(莊子)』에서 설명하고 있는 진인(真人)의 참된 모습을 말하는 것과 같다. 즉 “삶을 기뻐할 줄도 모르고 죽음을 싫어할 줄도 모르며…아무런 생각없이 선선히 자연을 따라갈 줄 알며 굳이 만물의 시초를 알려고 하지 않는”¹⁷⁾ 그야말로 유유자적하는

13) 『高麗史』 권99, 崔讜傳 「神宗時, 拜中書侍郎平章事, 進守太尉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 上章乞退, 遂致仕閑居, 扁其齋曰雙明…逍遙自適, 時人謂之地上仙, 圖形刻石, 傳於世…」

14) 『玉樓夢』 56回 「但無病無憂, 身世清閑, 以江上清風, 山間明月, 送百年, 方可謂地上仙」

15) 『抱樸子』 論仙, 卷第二 「按《仙經》雲, 上士舉形升虛, 謂之天仙. 中士游於名山, 謂之地仙. 下士先死後蛻, 謂之屍解仙」

16) 唐白居易長慶集 57, 池上卽事詩 「身閒當貴眞天爵, 官散無憂卽地仙」

17) 『莊子』 大宗師, 「古之真人, 不知說生, 不知惡死., 其出不訢, 其入不距., 儻然而往, 儻然而來而已矣. 不忘其所始, 不求其所終., 受而喜之, 忘而復之, 是之謂不以心損道, 不以人助

모습이다. 따라서 그 초월적인 능력을 지닌 신선을 현실에서는 도저히 실현할 수 없고 또한 볼 수도 없었으므로 지상신선이라는 표현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의미를 부각시켰다고 하겠다.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의 마음이 욕심에 치우치지 않고 근심 없이 생활하며 항상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데 지상신선의 의미를 두었다고 하겠다.

2. 이상적 인간상과 인간개조론

여기서는 인간개조에 관한 이론적 기초로서 제 종교의 인간관에서 다루어지는 이상적 인간상의 유형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유교의 성인군자론

유교는 공자(B.C.551~B.C.479)를 중심으로 하는 교학체계이다. 공자 이후 시대의 변천에 따라 그 사상적 조류도 변천과 기복은 있었다 할지라도 공자의 인도주의(人道主義) 정신이 일관하여 그 주축을 이루어 왔다고 할 수 있다.¹⁸⁾ 공자의 인도주의 사상이 지니는 특징에 대해서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될 수 있다. 첫째는 천도(天道) 귀신(鬼神)등의 초월적이며 형이상학적인 존재보다는 현실의 주체가 되는 인간의 삶의 문제에 관심을 두었다는 점이다. “아직 사람을 섬길 줄을 모르는데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으며, 아직 삶을 모르는데 어찌 사후의 일을 알 수 있겠는가”¹⁹⁾라는 명언은 이러한 사실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 둘째는 인(仁)의 실천을 통해 인간관계의 회복과 그 가치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가정에서는 ‘효제(孝悌)’를 행하고, 밖에 나가서는 항상 남을 배려할 줄 알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끔 덕을 베풀어나가는 것이 인(仁)을 실현하는 길이다.²⁰⁾ 이를 위해 자신의 욕구를 다스리고 예절을 갖추어 모든 처사를

天. 是之謂真人。」

18) 유승국 「동양철학연구」 근역서재, 1988, p.11

19) 「論語」先進 「季路問事鬼神 子曰 未能事人 焉能事鬼 敢問死 曰未知生 焉知死」

20) 「論語」學而 「君子務本 本立而道生 孝弟也者 其爲仁之本與」 雍也, 「子貢曰 如有博施於民而能濟衆 何如 可謂仁乎 子曰 何事於仁 必也聖乎 堯舜 其猶病諸 夫仁者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행하는 것이 그 방법이 된다.²¹⁾ 즉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며 또 어떻게 살아야 가치가 있으며 인간의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유학의 인도주의를 대표하는 공자가 평생을 기울여 추구한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²²⁾ 유교사상에서 추구하는 이상적 인간상은 바로 위와 같은 인도주의적 이념을 체현한 인격자를 지칭하고 있다. 그러한 인격이 성숙 완성된 인간을 가리켜 유교에서는 「군자(君子)」 「성인(聖人)」과 같은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군자란 본래 계급적인 명칭으로 정치에 종사하는 사대부(士大夫)를 가리키며, 일반서민인 ‘소인(小人)’과 대칭되었다. 그런데 사대부가 서민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마땅히 덕(德)을 갖추고 있어야하므로 ‘군자’개념은 ‘덕이 있는 사람’ ‘도덕적 인격’을 가리키는 말로 전화(轉化)된다. 그 이상적 인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자는 지·인·용(智仁勇) 삼덕(三德)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仁)으로써 주체를 확립하고 지(知)로써 사리를 분명히 인식하며, 용(勇)으로써 실천한다는 원칙은 천하에 통달하는 세가지 덕으로서 인격 완성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군자가 지닌 몇가지 특징에 대해서는, 아주 대범하다거나 남의 장점을 잘 드러내준다거나 남과 다투지 않으며 부화뇌동하지 않고 의리에 밝으며 다재다능하다는 점등을 들고 있다.²³⁾

성인(聖人)은 군자의 인격이 닦여져서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을 가리킨다. 말하자면 그 지혜와 덕이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다. 공자는 비록 평소에 ‘군자(君子)’를 이상적인 인격이라고 하였으나 사실상 진정한 이상인격은 ‘성인(聖人)’으로 지칭된다. 고대의 성인(聖人)이란 복희(伏羲) 문왕(文王)과 같이 임금으로서 <문물을 창시한 사람(製作者)>으로 여겨졌다. 한대(漢代) 이후 공자를 현창하면서 성인은 <지고한 인격을 갖춘 자>로서 또한 보통 사람과는 다른 존재로 여겨졌다. 그러나 송대(宋代)의 사대부들의 도학(道學)사상에 이르면 사람은 누구나 노력과 공부에 의해서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믿었으니 바로 기질을 변화시켜 본연의 성(性)을 회복하

21) 「論語」顏淵「顏淵問仁 子曰 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 爲仁由己 而由人乎哉」

22) 「유학사상」성균관대 출판부, 1999, p.144

23) 「유학사상」성균관대출판부, 1999, pp.149~150 참조

는 것에 의해 실현가능하다고 한 것이다.²⁴⁾

요약하자면 유교에서 추구하는 이상적 인간상은 그 인도주의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도덕적이며 인격적인 완성을 이룬 사람을 말하고 있다. 이 때 인격이란 인간관계 내에서 확인되어지는 내면적 덕성이며 도덕적 가치실현의 주된 동인(動因)이 된다. 그러한 인격이 자기 안에서 체현되어지고 또한 외적으로 발휘되어 사회적 도덕을 성취하는 인물이 곧 성인·군자라고 할 것이다.

2) 불교의 불타론

불교는 불타(고타마 싯달타, 석가모니)의 깨달음에 관한 교설을 중심으로 하여 성립된 종교이다. B.C.6세기경 인도에서 발생한 이후 중국을 거쳐 한국 일본 등지로 전래된 불교는 근본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 밀교 등의 다양한 모습을 거치면서 세계 전역에 확산되었다. 그 형태가 어떻게 변모하였던 불교의 가르침은 불타 즉 석가모니의 근본교설을 떠날 수 없다. 오늘날 한국을 포함한 대승불교권에서 발전된 불교의 내용에는 수많은 보살신들이 등장하고 정토(淨土)세계에 태어나고자 발원하는 신앙 체계가 만연되어 있지만 역사 속의 석가모니는 분명히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일수가 없다.

그는 단지 한 인간으로서 어떠한 신이나 외적 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았으며, 그의 깨달음과 성취가 온전하게 인간적 노력과 지성의 결과라고 했다. 오직 인간만이 불타가 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은 불타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를 위해 노력하기만 한다면 또한 불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단지 불타는 특히 빼어난 인간으로서 후일 대중적인 종교에서 거의 초인간으로 여겨진 것은 그의 인간으로서의 완전성 때문이었다고 본다.²⁵⁾ 석가모니가 이루었던 완성된 인간의 모습은 바로 모든 인간이 지니고 살아가는 고(苦)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무상정등각(無上正等覺)으로서의 지혜를 성취했음을 말한다. 그 지혜는 삼법인(三法印) 사성제(四聖諦) 팔정도(八正道) 십이연기(十二緣起)로써 요약된다.

24) 김수중 외 『인간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8, p.174 참조

25) Walpola Rahula 『What the Buddha taught』 Gordon Fraser Gallery Ltd., 1978, p.1

불타와 같은 지혜를 얻지 못한 자를 범부(凡夫) 또는 중생(衆生)이라고 하는데 어리석고 둔해서 탐진치(貪瞋痴) 삼독(三毒)에 빠져 번뇌에 허덕이는 존재이다. 불경은 범부의 특성을 욕망·쾌락·동요·고통 등의 부정적인 언어로 기술하고 그이 세계가 지각에 의해서 발생하고 유지·강화되어 가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苦)의 모습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계율생활과 선 그리고 반야와 신심을 통해서 부정적인 상태를 극복하고 부동(不動)의 열반(涅槃)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한다.²⁶⁾ 이처럼 불교에서 바라보는 이상적 인간상은 불타가 성취했던 지혜를 똑같이 얻어서 범부로서 지닌 고(苦)로부터 해방된 인간이다. 그러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통찰과 치열한 문제의식으로 자신과 싸워나가야 한다.

불교의 진리는 본질을 현실로 연역해오는 것도 아니요 눈앞의 현실을 본질적인 데로 환원해가는 방법론도 아니다. 다만 그 마음이 각(覺)했느냐 미(迷)했느냐에 그 본령을 둔 것이다. 각(覺)하면 불(佛)이요 미(迷)하면 범부이다. 현실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 또 관념에 사로잡힌 것도 아닌, 비색비공(非色非空)이고 부즉불리(不即不離)의 진여(眞如)를 드러내는 철학이다. 이 진여가 드러날 때 자비의 정신으로 세계를 감화하게 되는 것이다.²⁷⁾

3) 도교의 신선론

도교(道敎)는 중국의 전통종교로서 춘추전국시대의 도가(道家)철학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하나의 종교적 흐름이다. 도가철학에서 주장되는 자연(自然)은 인간의 인위와 대칭을 이룬다. 결국 인간 자아의 주체까지도 부정하여 무욕(無欲) 무지(無知) 무위(無爲) 무명(無名)의 상태에 이르러 파악되는 자연을 말한다.²⁸⁾ 이러한 자연에 대한 체득은 하나의 철학적 접근을 통하여 성취할 수 있는 것인 반면, 도교는 중국의 민간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무술적(巫術的)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는 복합종교적인 신앙형태를 통칭하는 것이다.

도교와 도가의 상관성은 차치(且置)하고라도, 도교의 복잡한 내용과 신앙

26) 허우성 외 「인간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8, p.206

27) 유승국 「한국사상과 현대」 동방학술연구원, 1988, p.234

28) 유승국, 上書, p.233

상의 다양성을 디디고 넘어서 한가지로 모아지는 내면의 사상성은 불로장생(不老長生)과 현세(現世)이익(利益)을 추구하는 종교로서의 이해가 가장 접근된 견해로 본다. 그 중에서도 불로장생을 희구하는 불사(不死)의 탐구가 더욱 주류를 이루고 있어 신선설에 관련되는 이론 내지 신앙형식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것이 합리적인 이론적 추구에서 양생술(養生術) 곧 수련(修鍊)도교(道敎)의 양상을 띠는 단학(丹學)이 연구되고 신앙상의 추구에도 무술적인 것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신앙형태와 그것이 양재기복(禳災祈福)을 주로 하는 현세이익을 추구하는 재초의식(齋醮儀式)으로 나타나기도 한 것으로 본다. 도가철학 즉 노·장사상에서 이야기되는 신선설은 이러한 도교에서 끌어다 자신의 이론을 세우는데 이용했다는 점에서 상호 연관성을 지닌다 할 것이다.²⁹⁾ 따라서 도교에서 추구하는 이상적 인간상은 바로 신선(神仙)이 되며 이러한 신선은 자기 수련을 통해 불로장생(不老長生)의 경지에 도달한 초인간을 말하고 있다.

앞절의 신선사상의 유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선은 자신의 수명을 무한대로 늘려서 늙어도 죽지 않고 병이 없이 장수하는 육체를 지니는 인간이다. 현실적으로 수명이 무한대가 될 수는 없었지만 특히 고대의 왕들은 그러한 신선을 희구하면서 불사약을 구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것만큼은 사실이라 하겠다. 이러한 신선사상이 일반인에게 과급되면서 모든 인간은 특수한 단련에 의해 신체의 병을 없애고 자신의 수명을 늘릴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한 약을 조제하여 먹기도 하고 자기절제와 특수한 호흡법에 의해 그것을 대중화하는 과정을 밟게 되었다. 역사적으로는 4세기초 서진 말에 갈홍의 손에 의해 『포박자』가 종합되어 그때까지의 신선사상이 거의 집대성되었다고 본다. 그는 <내편>에서 신선, 방약, 괴경, 변화, 양생, 벽곡을 비롯한 장생법, 악마쫓기, 재앙방지등을 설명하였으며 도교나 신선도의 이론으로서 연금(鍊金)이나 연단술(煉丹術)을 중시하였다.

4) 천도교의 인간개조론

한국의 근대 신종교로서 대두된 천도교(天道敎)는 최제우(호는 수운, 182

29) 송항룡 「한국도교철학사」 성균관대출판부, 1987, pp.38~40 참조

4~1864)의 종교체험을 근간으로 하여 최시형과 손병희로 이어지는 교맥을 가진 교단이다. 인내천(人乃天)을 종지로 내세운 천도교는 일제치하에서 신문화운동을 주도하면서 민족의 의식계몽을 강조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장된 것이 인간개조인데 이는 당시의 전도된 사회상을 개혁시켜 나가는 주체적인 인간상을 의미하였다고 본다.

1919년 8월에 일제가 소위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부터 1920년대의 독립운동은 언론·출판·결사·교육·산업·문예 등 여러 분야의 문화운동형태로 전개되었다. 1923년에 결성된 천도교청년당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를 타고 새로운 민족운동의 방향으로서 신문화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이유는 민족의 자주독립을 이룩하는 최선의 방법이 의식개혁과 문화적 각성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³⁰⁾ 여기서 천도교청년당은 부문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포덕·선전·조직·교양과 훈련·경제·체육·통신·문화 운동으로 구체적 계획을 작성하였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시된 것이 바로 ‘인내천’에 의거한 문화운동이었다. 문화의 흐름과 방향을 규정하는 것은 사상이므로 천도교의 ‘인내천’사상을 정신적 지주로 할 때 비로소 인류의 신문화가 창조된다고 하여 신문화운동의 절대 중요성을 강조하여 인내천운동을 제창하였던 것이다.³¹⁾ 이러한 신문화운동을 선도할 수 있었던 관건은 무엇보다도 ‘인내천’사상을 표방한 각종 출판물 간행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이며 이 때 간행된 대표적인 잡지로 『개벽』(1920 창간)과 『신인간(新人間)』(1926 창간)이었다.

『신인간』에 발표된 인간개조에 관한 글 하나를 간추려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수운 대신사의 구도 동기의 최중심(最中心)은 인간문제이다. 당시 대신사의 형안(炯眼)에 비취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타락 파멸된 인간들이었다. 즉 뿌리없는 나무 근원없는 물과 같은 인간이었다.… 「군불군(君不君) 신불신(臣不臣)」이라 하여 정치의 부패를 「부불부(父不父) 자부자(子不子)」라 하여 윤리의 괴멸(壞滅)을, 「유도불도(儒道佛道) 누천년에 윤이 역시 다했던가」라 하여 종교의 쇠퇴(衰弊)를 통탄하시었다. … 정치 윤리 종교 도덕등의 부패도 결국은 인간 그 자의 타락에서 기인한 것이 되므로 대신사께서 구도하시게 된 유일의 동기는 인간의 생명을

30) 황선희 「한국근대사상과 민족운동」 해안, 1996, pp.288~290 참조

31) 황선희, 上書, p.292

살려내고 인간의 뿌리를 내어주어서 인간 그 자를 근본적으로 개조하자는데 있었음을 우리는 깊이 인식할 수 있다. …한울님 하신 말씀 「나도 또한 공이 없는 고(故)로 너를 세간에 내어 모든 인간에게 이 법을 가르치게 하노라」 하셨으니…모든 인간에게 이 법을 가르치란 말씀은 이 법을 가르쳐 인간을 개조하라신 것이 분명하다. 그 다음 나의 영부(靈符)를 받아 인간들의 질병을 건져주고 나의 주문을 받아 인간을 가르쳐 나를 위하게 하라 하셨으니 인간들의 질병을 건져주란 말씀이나 인간을 가르쳐 나를 위하게 하란 말씀은 또한 인간개조를 가르친 것이요 영부(靈符)와 주문(呪文)에 대한 말씀은 인간개조의 실제적 방법을 명시하신 것이 또한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³²⁾

윗 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천도교에서 주장한 인간개조는 당시 한국사회의 정치 윤리 도덕 종교등의 타락을 비판하고 그 개선을 위한 인간의 의식계몽을 부르짖는 용어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의식 계몽의 방법으로 제기된 수운의 시천주(侍天主) 사상은 모든 인간이 한울님을 모시고 그 가르침을 따를 때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으로 인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상신선’의 실현을 강조하기도 하였는데 이 역시 천도교의 ‘인내천’에 입각하여 민족의식을 계몽하고 새로운 사회도덕을 확립한 인간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에 다름아니라 할 것이다.

Ⅲ. 대순진리의 지상신선실현-인간개조론

1. 지상신선실현의 역사적 근거 - 천지공사

대순진리의 목적에서 제시된 지상신선실현·인간개조에 관한 이해는 그 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신앙적 토대에서 찾아져야 하리라 본다. 대순진리에 관한 신앙은 이 땅에 강세하신 구천상제의 대역사로부터 출발하여 그것을 도주 조정산이 이념적으로 확립한 교리개요에 입각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목적’으로 명시된 내용은 하나의 신앙적 실천이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을 개인과 사회 나아가 세계전체로 나누어 설명한 것이라 하겠다.

지상신선실현은 대순진리의 수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인간 자체의 완성된 경지라 할 수 있다. 앞선 논문에서 다루었던 무자기·정신개벽은 주로

32) 김병제 「人間改造와 侍天主」 「신인간」 118호, 1937 참조

인간의 정신(마음) 차원에서의 논의였다면 지상신선실현은 세계 내에서 하나의 현상으로 존재하는 인간 자체의 이상실현에 관한 논의이다. 즉 범부(凡夫) 중생(衆生) 소인(小人) 등으로 불리며 살아왔던 인간이 대순진리의 가치실현을 통해 어떤 모습으로 거듭나는가의 문제를 말하려는 것이다.

대순진리에서 제시하는 이상적 인간상은 말하자면 ‘지상신선’이라 하겠는데 그 이론적 배경은 역시 구천상제의 천지공사라 하겠다. 상제께서 강세하기 이전의 세계는 선천(先天)으로서 상극의 원한이 점철된 진멸(盡滅)의 지경이었다. 이러한 시기에 상제께서는 역대 신성·불·보살의 하소연에 의하여 강세하였으며 진멸에 처한 인류창생을 건지기 위하여 대공사를 단행하였다. 다음의 『전경』 구절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묘사해 주고 있다.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고 김형렬에게 말씀하시고 그중의 명부공사(冥府公事)의 일부를 착수하셨도다.³³⁾

즉 선천은 상극의 지배로 인해 원한이 쌓이고 맺힌 참혹한 세계이다. 상극은 원래 우주변화과정에서 요구되는 발전의 필요악(必要惡)으로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으나 인간사회 내에서는 그 정상적인 의미발현을 할 수 없었으니 인간의 욕심에 치우친 부정적인 결과만을 낳게 되었다. 대순사상에서 원의 시초로 보고 있는 단주의 원한은 곧 요·순시대에 발생했던 한 인간의 권력욕에 기인하는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³⁴⁾ 이외에도 질투심과 음해(陰害), 금전욕, 명예욕 등은 수많은 원망을 발생시키는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대변하고 있다. 특히 현대의 인간은 재리(財利)에만 눈이 어두워서 진멸지경에 이르도록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상제께서 일찍이 지적한 바이다.³⁵⁾

33) 『전경』 공사 1장 3절

34) 『전경』 공사3장 4절 참조

선천은 이렇게 인간에게서 발생한 원망이 얽히고 설켜 자연계에까지도 영향을 미쳤으며 나아가 상도(常道)의 괴멸(壞滅)이라는 지경에서 그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던 것이다. 상제께서는 이러한 선천의 한계상황에서 그 절대 권능을 발휘하여 인류창생을 구제하시게 되었으니 천지공사는 그 광구천하(廣救天下)의 대역사(大役事)를 담당하는 기록이라 하겠다.

천지공사를 통해서 상제께서는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푼다고 하였으며 또한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움으로써 세계의 민생을 건진다고 하였다. 즉 상제께서 직접 지어 만드는 후천선경의 세계에서 인간은 비로소 인간다움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고 선천 세계에서 이루지 못했던 이상적인 삶을 영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지상신선실현의 참된 의미가 드러난다. 지상신선이란 상제께서 역사(役事)하신 후천선경을 살아가는 인간이며 선천의 온갖 욕구와 한계를 극복한 참된 인간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다.

후천선경은 하나의 관념으로 도출되는 상상의 세계가 아니며 또한 인위적 노력으로 실현가능한 사회제도의 차원도 아니다. 최고신으로서의 권능을 지닌 구천상제께서 인세에 직접 강세하시어 행하신 천지공사의 결과로 주어지는 세계이다. 천지공사는 오직 상제의 권능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것으로 단순한 세계해석의 논리가 아닌 철저한 신앙을 요하는 전무후무의 대역사라고 하겠다.³⁵⁾ 이 때 인간은 후천선경을 맞이하여 그 자신의 새로운 변모를 하게 되는데 그 세계와 그 인간에 대순진리가 일이관지(一以貫之)함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샷 틈없이 도수를 짜 놓았으니 제한도에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또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의 뱃속에 출입케 하여 그 체질과 성격을 고쳐 쓰리니 이는 비록 말뚝이라도 기운을 붙이면 쓰임이 되는 연고니라.³⁷⁾

35) 「전경」 교법1장 1절. 「이제 천하 창생이 진멸할 지경에 닥쳤음에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재리에만 눈이 어두우니 어찌 애석하지 않으리오.»

36) 「전경」 공사 1장 2절 「...그러므로 우리는 개벽하여야 하나니 대개 나의 공사는 옛날에도 지금도 없으며 남의 것을 계승함도 아니오.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오. 오직 내가 지어 만드는 것이니라. 나는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 하시고 「너는 나를 믿고 힘을 다하라」 고 분부하셨도다.

천지공사에 의해 진행되는 세계는 도수(度數)라고 하는 과정에 의해서 단계적인 발전을 거듭한다. 물샐틈없이 짜여진 도수에 의해 제 한도에 돌아드는 대로 새 기쁨이 열린다고 하였으므로 현대 문명 또한 천지공사의 도수에 놓여있는 하나의 과정에 해당한다. 이 때 후천선경은 현대문명이 전개되어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미래사회에 다름아니라 하겠는데 인간 또한 이 과정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게 된다.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의 뱃속에 출입케 하여 그 체질과 성격을 고쳐 쓴다고 하였으므로 신명과 인간의 합일(合一)적 조화(調化)에 의해 탄생하는 신인간(新人間)의 모습을 지향하고 있다. 자기가 지닌 본래의 체질과 성격을 뜯어고칠 수 있다면 분명 육체적인 한계와 정신적 결함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자기를 탄생시킬 수 있다.

이처럼 『전경』에 묘사되어 있는 후천의 인간상은 선경(仙境)과 선인(仙人)의 관계와 같다. 환경적으로 도화낙원의 극치를 묘사한다면 그 세계를 살아가는 인간 또한 신선 선녀의 모습에 비유될 수 있다. 천지공사는 이러한 후천선경을 이루는 역사적 근거가 되면서 그 지상선경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지상신선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2. 인간개조 방법론으로서의 수도

천지공사의 근거로 인해 실현가능하게 된 지상신선은 후천선경의 건설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후천선경의 건설이 상제의 권능만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세계라면 단지 인간은 수동적인 자세로 그렇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기만 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후천선경의 건설에는 반드시 인간 모두의 주체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특성을 지닌다. 왜냐하면 선천의 한계가 발생하게 된 요인이 인간의 무분별한 욕구때문이었으며 그러한 인간 자신의 근본적인 변화과정이 없으면 새롭게 주어지는 환경에 또 하나의 부정적인 현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상제께서는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³⁷⁾고 하시고 「선천에는 모사(謀事)가 재인(在人)하고 성사(成事)는

37) 『전경』 교법3장 4절.

38) 『전경』 교법 2장 56절

재천(在天)이라」 하였으며 이제는 모사는 재천하고 성사는 재인이니라. 또 너희가 아무리 죽고자 하여도 죽지 못할 것이오. 내가 놓아주어야 죽느니라.」³⁹⁾ 그리고 「사람이 없으면 천지도 없다 그러므로 천지가 사람을 낳아서 사람을 쓴다」⁴⁰⁾고 함으로써 인간주체에 대한 강조를 잊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의 주체는 후천선경의 건설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탄생될 수 있는가. 그것은 인간 자신이 지닌 기질적인 변화와 본연의 양심을 회복하는 과정으로서의 인간개조에 의해서라고 할 것이다. 인간개조는 지상신선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이면서 선결과제이기도 하다. 대순진리의 목적에서 제시된 무자기·정신개벽은 바로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의 논리를 지닌다.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음’의 실천을 통해 정신개벽을 이루고 그렇게 개벽된 정신에 의해 자신의 몸을 다스려 나갈 때 기질적인 변화까지도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 과정을 하나의 인생관적 단어로 표현한 것이 곧 ‘수도(修道)’이다. 자신의 체험적 진리를 신앙하고 그것을 신념화하여 자신의 전 생활영역에 적용해 나갈 때 하나의 삶으로서의 ‘수도(修道)’가 빛이 나게 된다. 상제께서는 이러한 수도를 ‘공부’라는 말로써 비유하여 그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 「천지의 조화로 풍우를 일으키려면 무한한 공력이 드니 모든 일에 공부하지 않고 아는 법은 없느니라. 정 북창(鄭北窓) 같은 재주로도 입산 삼일 후에야 천하사를 알았다 하느니라」 고 이르셨도다. 41)

상제께서 하루는 종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안지방 신명을 불러도 응하지 않으므로 사정을 알고자 부득히 그 지방에 가서 보니 원일이 공부할 때에 그 지방신(地方神)들이 호위하여 떠나지 못하였던 까닭이니라. 이런 일을 볼진대 공부함을 어찌 등한히 하겠느냐」 하셨도다. 42)

공부는 비단 책을 읽어 학문적인 지식만을 일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윗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천지의 조화로 풍우(風雨)를 일으키는 노력도 공부에 해당하며, 신명(神明)과의 합일(合一)을 위한 수련과정도 공부에

39) 「전경」 교법3장 35절.

40) 「전경」 교법3장 47절. 「…然無人無天地 故天地生人 用人」

41) 「전경」 교운 1장 35절

42) 「전경」 교운 1장 63절

해당한다. 그리하여 자신이 바라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을 때 그 목적달성에 동원된 모든 과정은 공부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수도란 그러한 공부행위에 하나의 지침이 될 만한 신념을 내포한다는 말이니 여기서는 구천상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그 가르침에 귀의하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수도의 공효(功效)에 대해서는 상제께서 「도를 닦은 자는 그 정혼이 굳게 뭉치기에 죽어도 흩어지지 않고 천상에 오르려니와 그렇지 못한 자는 그 정혼이 희미하여 연기와 물거품이 삭듯 하리라.」⁴³⁾고 한데서 개인의 정혼을 굳게 뭉치게 해주며, 「우리의 일은 남을 잘 되게 하는 공부이니라. 남이 잘 되고 남은 것만 차지하여도 되나니 전 명숙이 거사할 때에 상놈을 양반으로 만들고 천인(賤人)을 귀하게 만들어 주려는 마음을 두었으므로 죽어서 잘 되어 조선 명부가 되었느니라.」⁴⁴⁾고 한데서 남을 잘 되게 하는 일임을 알 수 있다. 이 모든 행위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인간됨을 개조하는 것에 있지만 그 과정에서는 자기 뿐만이 아닌 남을 두루 잘 되게 해주는 것으로 자타불이(自他不二)의 가치실현에 초점이 놓여있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개조는 지상신선실현을 위한 선결과제이면서 그 자체로 하나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수도(修道)를 그 방법론으로 삼고 있다 하겠다.

3. 지상신선실현 · 인간개조의 교학적 함의

앞서 살펴본 지상신선실현 · 인간개조에 관한 내용은 대순진리의 신앙에 기초한 그 논리적 구조를 밝힌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개념이 대순진리 내에서 독창적으로 지니는 교학적 함의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지상신선실현에서 신선이라 함은 본래 불로불사의 몸을 지니고 마음대로 하늘을 날아 다니는 초인간적인 능력의 소유자를 일컬었다. 하지만 누구나 이러한 능력의 소유자가 되고 싶어도 그것을 증명할 만한 실존인물이 존재하지 않고 또한 혹세무민하는 자의 꾀임에 빠져 일신(一身)을 망치기까지 한 역사를 돌이켜보건대, 현실에서의 신선은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본다. 그리하여 지상신선이라고 일컬을 때에는 그저 일상생활에

43) 「전경」 교법2장 22절.

44) 「전경」 교법1장 2절.

근심이 없고 욕심이 없이 자신의 몸을 건강히 유지하는 사람을 빗대어 말한 것이라고 하겠는데 이는 또한 누구나의 마음에 살아있는 신선에 대한 바람을 일상에 적용시킨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대순진리의 목적으로 제시된 지상신선실현도 이러한 상투적 의미의 지상신선이나 하면 그렇지 않다. 분명한 실현 근거가 있고 그 방법론이 제시된 의미의 지상신선이다. 즉 구천상제께서 강림하시어 처결해 놓으신 천지공사의 역사가 불과 100년 남짓도 안되는 가까운 일로써 『전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하나의 총체적인 후천문명의 형성과 더불어 찾아오는 인간자신의 변모된 모습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마다 불로 불사하여 장생을 얻으며’,(예시80절) ‘기차와 운선으로 백만근을 운반하고… 운거(雲車)를 타고 바람을 제어하여 만리 길을 경각에 왕래’(예시75절)하며,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예시81절)하는 등의 모습을 지니는 후천의 인간은 모두가 지상신선에 다름아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닐 수 있게 된 근거가 바로 상제의 천지공사에 있음을 밝히고 그에 따른 신앙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의 구절은 이 사실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니라. 「나의 얼굴을 똑바로 보아두라. 후일 내가 출세할 때에 눈이 부셔 바라보기 어려우리라. 예로부터 신선을 말로만 전하고 본 사람이 없느니라. 오직 너희들은 신선을 보리라. 내가 장차 열석자의 몸으로 오리라」 하셨도다.⁴⁵⁾

윗 글에서 강조된 것은 무엇보다 상제에 대한 신앙이며 그 신앙의 내용이 바로 천지공사의 역사에 의해 가능하게 된 신선실현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 대순진리의 지상신선실현의 참된 의미가 담겨있다고 하겠다.

다음으로는 인간개조에 관한 것으로 이는 대순진리의 종교사상이 지니는 인간관의 특질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론적 용어이다. 즉 하나의 현상으로 존재하는 인간의 현실태는 어떤 것이며 그 부정적인 현상을 극복하고 나아가 이상적 인간상의 모습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를 말한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 종교는 나름대로의 이상적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유교

45) 『전경』 행록5장 25절

에서 일컫는 성인·군자론, 불교에서 일컫는 불타, 도교에서의 신선, 천도교에서의 인간개조론 등등은 그 고유한 사상체계 내에서 논의되어지는 이상적 인간상에 관한 개념들이다. 이 때 대순진리의 목적으로 제시된 인간개조의 내용은 앞서 언급한 인간상의 개념과는 물론 성격을 달리한다고 본다. 대순진리에서의 인간개조란 근본적으로 상제의 천지공사가 지향하는 후천선경의 삶을 사는 인간으로 변모됨을 뜻한다. 후천과 대칭을 이루는 선천에서의 인간이란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으면서 자신의 욕구에 사로잡혀 지속적인 원망을 엮어가는 상극적 현실의 담지자이다. 이러한 인간의 부정적 모습을 탈피하여 후천의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이 곧 인간개조이다. 다시 말해서 후천의 인간이란 상생의 시대를 열어가는 상생적 실천의 주체자이며 그 마음을 거울과 같이 닦아서 진실하고 정직한 인간의 본질을 회복한 인간이다. 이러한 인간이 또한 지상신선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수도(修道)는 진정한 인간개조의 방법론으로 거론되면서 지상신선으로서의 존재가치를 결정짓는 실천적 행위이다. 후천선경에 적합한 인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모든 주체적 노력을 아우른다. 여기에 수도와 지상신선실현은 그 목적과 방법론의 관계에서 상관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상에서 수명 복록이라 하여 수명을 복록보다 중히 여기나 복록이 적고 수명만 길면 그것 보다 욕된 자가 없나니 그러므로 나는 수명보다 복록을 중히 하노니 녹이 떨어지면 죽나니라.⁴⁶⁾

윗 글에서 말한 수명과 복록은 모두 인간사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이다. 수명은 삶의 시간적이고도 양적인 문제이며 복록은 삶의 공간적이고도 질적인 문제이다. 삶의 시간이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풍요롭지 못하고 고통의 연속이라면 차라리 짧은 것만도 못하다. 마찬가지로 삶의 질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그 시간이 지극히 짧다면 이 역시 허무할 수 밖에 없다. 상제께서는 이러한 수명과 복록의 부조화를 벗어나 지상신선의 참된 가치를 누리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수도과정에서의 모든 노력은 '남을 잘되게 하는 공부'라고 하였으므로 자리이타(自利利他)적인 공효(功效)를 거두어 하나의 복록을 형성하는 밑거름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신

46) 「전경」 교법1장 16절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수도의 과정에서 쌓여진 복록이 또한 후천의 수명이 된다는 것을 밝혀서 진리실현에의 의식을 일깨우고 나아가 후천선경 건설의 참된 주체로 나설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상신선실현·인간개조는 무엇보다도 대순진리의 신앙적 특성에 입각하여 제시된 목적이며, 그 신앙의 바탕이 되고 있는 구천상제의 존재와 대역사로서의 천지공사는 이를 이해하기 위한 부동(不動)의 신앙대상 이면서 하나의 역사적 근거로 살아있는 개념이라 하겠다.

IV. 결언

이상으로 대순진리의 지상신선실현·인간개조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대순진리의 목적을 논의한다는데 있어서는 앞선 논문의 연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지만 무자기·정신개벽이 인간의 심성론적 차원에서의 논의라면 지상신선실현·인간개조는 인간관 그 자체에 관한 논의로 보아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본문에서 다룬 내용은 먼저 지상신선의 전통적 의미를 밝히고 제 종교에서 추구하는 이상적 인간상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이어서 대순진리의 인간관으로서의 지상신선 그리고 인간개조의 내용을 고찰해 보았다.

본 논문에서 주안점으로 삼았던 것은 역시 지상신선·인간개조가 지니는 전통적이고도 상투적인 의미를 벗어나 대순진리 내에서 받아들여지는 그 고유한 의미를 밝히는데 있었다고 하겠다. 대순진리의 신앙체계에 입각하여 그 신앙적 실천을 통해 도달되는 궁극적 경지는 한 인간의 완성이면서 나아가 사회적 가치실현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상신선실현·인간개조는 전통적 의미에서 벗어나 대순진리의 가치실현을 담고 있는 새로운 교리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그러한 인식의 선행 하에서 비로소 대순진리의 독창적 가치가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